SNUAC Asia Square Brown Bag Seminar Series, Fall 2023

중국 공세적 산업정책의 지역적 이행: 광둥성 ICT 제조업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이경진

미중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의 국제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은 기술 자립과 국내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산업에 대한 당-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공세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산업정책은 지방정부가 해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특징적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광둥성 ICT 제조업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공세적 산업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논의하며, 또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발전모델이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검토한다. 광둥성의 ICT 제조업은 세계화 시기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통신장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탈세계화 시기에는 화웨이, ZTE 등 광둥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미중 무역-기술분쟁의 쟁점이 되었다.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지역 및 산업부문인 광둥성 ICT 제조업의 산업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자유시장경제에 비교적 가깝다고 평가되어 온 광둥성의 발전모델은 또 다른 변화를 보인다.

본 연구는 중국 발전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인 산업정책의 지역별 및 산업별 다양성과 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발전모델을 이해하는 하나의 조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공세성이 균일하지 않다고 보며, 이는 향후 중국의 공세적 정책 또는 과잉확장이라는 현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경진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산업고도화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ICT 제조업을 다룬 논문으로 국제정치경제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산업 및 혁신정책, 중앙-지방관계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Date & Time: December 12, 2023.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